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온 천하 만물 우러러(찬33/새69장)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병주 장로 2부/김진원 집사 3부/김주홍 집사 4부/홍아름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작곡 진선미)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역대상 4:9-10 ..... All together 다같이  
4부/출애굽기 4:10-17

말씀 Message ..... 1, 2, 3부 ..... Rev. Chansoo Lee 이찬수 목사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4부 ..... Rev. Moses Kim 김홍식 목사  
인생의 마지노선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지금도 연애 중

### Still Dating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저는 지금도 퇴근하여 집으로 갈 때, 가슴이 설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 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1초라도 더 빨리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 모 신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교수님이 간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혼이라면 이해하지만,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신혼 때 같은 마음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떨쳐 버릴 수 없었던 생각은 이 분은 참으로 행복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떠들썩한 연애를 했다 할지라도 안타깝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정말 천연기념물적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펜싱하는 여학생과 방송국 기자인 남자 선배와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으로 드라마를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저리게 했습니다. 물론 펜싱선수 나희도 역의 김태리의 연기력이 한몫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드라마 한 편에도 울고 웃나 봅니다.

부부 사이에 아직도 심장이 콩닥거리면 병원에 가봐야 할 일이지만, 주님과 사랑은 오늘도 드라마에서처럼 콩닥거리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때, 책상 앞에 “내 심장은 주님을 위해 뛰다”라고 붙여 놓고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심장 전문의 피터 박사님(GMMA대표)의 책을 보니 첫 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은 죽은 심장도 뛰게 한다”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20대 청춘에도, 50대 중년에도, 그리고 꽃다운 70, 80대에도 여전히 첫사랑처럼 심장을 뛰게 하나 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교회 주차장에서 총총걸음으로 예배에 달려오는 자라면 틀림없이 행복한 분들입니다. 예배드릴 때 은혜를 너무 받아서 K-Drama 감동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벅찬 눈물을 흘린다면, 두 배로 행복한 분입니다. C. S. Lewis는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나중에 천국이 아주 낯선 곳이 될 것입니다. 아니 낯선 곳이라면 천국이 아닐지도 모르죠. 오늘도 주님의 amazing grace를 감동 속에 외치며 주님과 계속 연애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I am still excited to go home when I’m done with work.” “When I get home, after I park my car, I run in to the house. I want to see my wife, even a second sooner.” President of a seminary in Korea said those in his testimony. It’s understandable if he was a newlywed. But he said, even in his 60’s, he still feels like a newlywed. After listening to his confession, I thought to myself, “He must not be from this world.” What I really cannot forget is the thought that he is truly a happy person. When there are so many people separating, even after world-famous romances, his is truly a monumental confession.

Recent Korean drama <Twenty Five Twenty One> is about a fencer and her colleague who is a TV station reporter. Their unrequited love ached the viewer’s hearts. Of course, acting ability of Taeri Kim, who played the part of the fencer Na Hee, definitely had a huge part in that. However, this drama made us laugh and cry because of the longing we all have for pure and innocent love.

Perhaps, if a couple’s heart still flutters for each other, a visit to a hospital may be in order. I wish our hearts flutter with love for God, like when we were watching the drama. When I was in college, I had a sticker that said “My heart beats for God” in front of my study desk. When I saw the first chapter title of Dr. Peter (GMMA President)’s book, it read “God’s voice can make dead heart to beat”. Whether you are in your youthful 20’s, middle age of 50’s, or beautiful 70 or 80’s, our love for God still beats like our first love. When you are taking quick steps to church from parking lot because of your love for God, definitely you are a happy person. If you are shedding tears out of grace received in your heart during worship, better than that from K-drama, then you are a doubly happy person. C.S. Lewis said, “Heaven is a celebration of heart-fluttering first love that you meet every day.” If you don’t know this love, heaven can be an unfamiliar place. If it’s unfamiliar to you, it may not even be heaven. Let’s shout His amazing grace today and may this worship be a continuous dating with God.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이찬수 목사

#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9-10

적용하기



교육부-제자반

# 택하신 자녀의 신분과 수준



하지 못하는데 그 많은 암송과 숙제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주는 왜 내가 이 훈련을 시작했다 후회도 했습니다. 숙제가 많았는데 그중에 성경 읽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읽으려 했으나 계속 잠이 와서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때로는 성경 읽기가 밀려서 더하기 싫었습니다. QT 습관은 저에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빨리 읽고 말았는데 최근에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QT를 하면서부터는 이제껏 힘들었던 Self control이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했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으며 실제로 친구들이나 관계 속에서 화가 날 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참을 힘도 생겼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고 멕시코 선교의 현장으로 가고자 합니다. 한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선교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갈 것입니다. John 선생님께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꼭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봉사해주신 팀장님,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로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주 부족하지만, 더 성장하여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Jake Hwang(8학년)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훈련이 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제자 훈련에 늘 있었으니 조금만 외우면 될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암송은 좀 힘들었습니다. 숙제도

부담이 되었지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에서 휴거에 대하여 배웠고,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제 마음에 새겨진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이 길을 함께 갈 것입니다.

Josiah We(5학년)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암송은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주의 훈련은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제가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훈련을 통하여 매일 매일 QT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QT를 통하여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동안에 읽었던 책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제가 주님의 자녀로 늘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가기를 기도하며, 제게 이런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Olivia Nam(7학년)

제자반을 통하여 말씀의 중요함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주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창조 전에 저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제게 혼돈의 세상에서 살라고 하지만 저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저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제자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Sophia Rhim(5학년)

이번 제자 훈련은 처음 받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저희를 택하여 주심에 대하여 배웠고 그를 통하여 구원으로 이어지는 복음을 다시 공부하였습니다. 매주 성경 구절을 외워야 했는데 이를 통하여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다니엘 전도사님과 지나 전도사님께서 저희의 질문들에 매년 답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10주의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QT를 하게 되었습니다.

Hajun Lee(6학년)

저는 DT2 훈련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DT1을 할 때 영어도 잘

# 말씀 AGAIN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인용되는 책 제목 혹은 찬양 위인들의 인용구, 찬양을 정리하여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Again" 나눕니다.

#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죽음을 맛보셔야 했는가?

시 가운데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은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나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주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구원을 이룬 분이십니다.

**The Four Loves(네 가지 사랑) - 저자 C.S. Lewis**  
 <2021년 7월 11일 '이 생각을 품으라' 설교>

씨에스 루이스는 아가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중에서도 친구들 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

<2020년 5월 24일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 설교>



눈물 한 방울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하며 절규하듯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죠. 그리고는 마지막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모두 담긴 한 방울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 저자 로버트 멩어**

<2020년 6월 14일 '우리는 그의 집' 설교>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성장을 위한 교과서로 널리 읽혀오고 있는 독보적인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진리를 '집'이라는 친숙하고도 재미있는 비유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이 책은 서재, 주방, 침실, 벽장 등등 집안의 구석구석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모두 내어놓아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아닌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려고 싶지 않던 저지분한 "내 마음의 집" 구석구석이 주님을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갈하고 깨끗한 장소로 변화되어가는 이야기, 나 혼자 끄꿍대며 아무리 청소하려고 했으나 깨끗해지지 않던 장소가 주님께 모두 보여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친구 A가 죽었을 때, B는 친구의 A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친구 C 안에 차지하고 있는 A의 부분도 잃은 것이다. 또한 친구 C는 친구 A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친구 B 안에 있는 A의 부분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루이스(Lewis)는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당대의 판타지 소설을 썼던 동료 작가 찰스 윌리엄스, 로널드 톨킨(J.R.R. Tolkien)과 잉클링스(Inklings)라는 문학 토론 모임에서 절친한 친구로 지냅니다. 58세에 죽은 찰스 윌리엄스를 잃은 뒤 그 상황에 대해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찰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찰스의 농담에 반응하는 로널드의 모습도 잃어버렸다. 로널드를 통해서만 나에게 다가오던 찰스의 모습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로널드 자체의 모습도 줄어들었다." 친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조명을 받게 되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면, 즉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 이처럼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이 새롭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 한 생각을 품는 일이 어렵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으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베델뉴스팀

**내가 사랑하는 사람-정호승**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내가 베델인 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숨기고만 싶은 그 내밀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집이 그분과 함께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공간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리라 믿습니다.

새가족 소개

# 퍼즐 한 조각



저희 딸이 어학연수를 준비하던 2019년, Irvine을 방문하려고 준비를 마쳤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진 저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받게 되었는데, "기적입니다! 다행히 막힌 곳이 하나도 없으니 수술은 필요 없고 며칠 쉬셨다가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어렵듯이 들렸습니다.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과 함께, 만약 저의 몸 상태를 모

르고 미국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두 번의 Irvine 방문 이후, 주님의 인도로 미국 이주를 위한 비자를 신청했지만, 그때만 해도 아내와 저는 미국에서 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비자 신청 5개월 만에 나온 비자를 들고, 이민 가방 6개만 들고 지난달에 이곳 Irvine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Irvine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주님이 정해주신 교회를 만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대로 6월 19일 베델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조용히 교회 본당으로 걸음을 옮기던 우리 가족 앞에 천사처럼 바나바로 섬기시는 집사님이 다가오셨고, 감격스러운 미국에서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새가족 환영회, 가정 심방, 특별 새벽기도회, 신학 강좌, 셀목자님과과의 만남 등 한

없이 부족한 우리 가족을 위해 주님께서 준비 해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베델교회를 만나 2인 3각의 띠를 단단히 묶고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오르며,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하기만 한 광야길 위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베델의 가족으로 제2의 삶을 시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오직 교회가 희망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God's Timing is Perfect!

김유진 성도

베델 선교-몽골

# 참여한 자만의 누림



예살 몽골 단기 선교팀은 2년 동안의 팬데믹을 뚫고 현지로 가서 몽골 땅을 밟고 영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가운데 준비를 잘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송 날짜가 다가올수록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몸이 아파서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번 선교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사역보다 팀원들의 건강을 위해 전심으로 중보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자발적으로 시작된 큐티 나눔, 베드로후서와 시

편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이 깨어 있었고, 말씀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육의 아픔에 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누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옆드려 간절히 간구하여 열 명 모두 온전하게 파송되고 단 한 명도 코로나의 영향을 끼치지도 받지도 않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با 아버지의 손안에 보호하심과 돌보심, 이 크신 기적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몽골 선교 사역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김소라 자매(예살, 청3)

기에 놓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가기 직전까지 저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지만, 출국 당일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사역에서 만난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눈과 깨끗한 영혼을 접하며 나의 더러움이 치유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빼어난 자연경관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확인하는 순간 그분의 위대하심을 느꼈습니다. 많게는 네 다섯 가지의 기도제목을 나누어 주었던 몽골 청년들의 삶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에 감동했고, 언어는 다르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리쳐 외치는지 이해하며 주체할 수 없게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했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기 좋아하는 저였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았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손하고 원초적인 질문에 그분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제 선교의 시작과 끝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서원 형제(예살, 청3)

출국 며칠 전 일어난 개인적인 일로 불참할 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파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제1회 목욕탕 THINK 목회세미나

지역광고

#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8월 수요일예배

베델교회는 김양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1회 목욕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서 부끄러움의 옷을 벗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깨끗함을 얻는다는 취지의 목욕탕 세미나는 이미 한국의 목회자 부부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해 은혜의 정수를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THINK는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 목회 철학으로 Telling(고백), Holifying(거룩), Interpreting(큐티), Nursing(돌봄), Keeping(적용)을 의미합니다.

- ▶ 주제: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큐티
  - ▶ 대상: 목사와 사모, 평신도 리더십(장로, 소그룹 리더) 선착순 200명
  - ▶ 일시: 8월 1일(월)~8월 3일(수),
  - ▶ 장소: 베델교회 본당
  - ▶ 접수기간: 7월 23일(토)까지
  - ▶ 신청: 베델교회 홈페이지(bkc.org)
  - ▶ 참가비: \$100(온라인 입금), 베델교회 성도 \$50
  - ▶ 주관: 미주 QT.M
  - ▶ 문의: 박경철 목사 (949)774-9557  
 조태현 목사 (949)431-8400
- \*식사와 교재제공, 숙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8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수요일예배는 김한요 담임 목사의 깊이 있는 말씀이 다시 펼쳐집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유명한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샘물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4주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 '나의 기도는 살아있는지', '감춰진 보화'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죽음 이후의 심판과 추수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해주시길 것입니다. 그 깊은 말씀의 세계로 다 함께 Go Deeper! Go Higher!

- 1주 차 8월 10일 (목 11:5-13): 강령하는 기도
- 2주 차 8월 17일 (마 13:44-46): 감춰진 보화
- 3주 차 8월 24일 (목 16:19-31): 부자와 거지 나사로
- 4주 차 8월 31일 (마 13:24-30, 36-43): 알곡과 가라지

- ▶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장소: 본당 현장예배
- \*오후 7시 Youtube로 방영됩니다.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7,8월)	7/31: ①부-강현석	②부-고석민	③부-곽태일	④부-김준희
	8/7: ①부-권순렬	②부-김건수	③부-김교식	④부-최재환
	8/14: ①부-김귀성	②부-김근수	③부-김도석	④부-하헌정

헵시바토요일 새벽 대표기도(7,8월)	7/30: 박제균	8/6: 박상범	8/13: 백권기	8/20: 변영택
강단꽃(7,8월)	7/24: 박재영	7/31: 이 청, 김지원	8/7: 최호경	8/14: 김창남, 안예진, 최하차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석완(심장내과), 간호사-채수정      다음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홍정미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정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베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 슬기로운 예배 방역 지침 이미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확산이 되며 따라 COVID 증상을 스스로 관찰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와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와 모임 중에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회 목욕탕 THINK 목회세미나 큐티하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고자 목회세미나가 열립니다. 목회자들과 셀목자님들 외에 큐티 목상에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셀목자님들은 꼭 참여하셔서 셀모임의 나눔을 위한 훈련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8월 1(월)-8월 3(일), 분당
신청/접수기간: 베델교회 홈페이지 (bkc.org), 7월 11(월)-7월 27(일)
참가비: \$50(베델교회 성도만 해당/ 교재와 식사제공)
\*1-3부 예배 후 분당 입구에 신청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수요일예배 안내 "이제부터 기도, 다시 시작"라는 주제로 수요일 오전 10시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 아침영상 여름 이벤트 김한요 목사와 함께 하는 아침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엮니다. '여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풍경 사진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아침영상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

주제: 여름 풍경
모집기간: 7월 24(일)-8월 6(토)
방법: 4K화질의 원본 파일 사진(가로 촬영), 장소의 이름도 함께 적어주세요.
원본 파일 보낼 곳: hongsikim@bkc.org
문의: 김성균 집사(949-838-4110)

◆ 한어 중고등부(CIM) 여름 수련회 한어권 중고등부 자녀들이 2박 3일간 'Rese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8월 11(목)-8월 13(토), 갈릴리 수영장
회비: \$150(2명 이상 자녀 \$130)
문의: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 교회학교 큐티인 섬머챌린지 교회학교에서 7월~8월 두달간 큐티인 섬머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두달간 매일 큐티를 한 친구들은 시상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집중적으로 큐티인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베델의 모든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7월 큐티인 교재는 실내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베델 아기학교 교사 모집 아기학교가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모든 분의 지원 바랍니다.
문의: 김경자 권사 (949)351-6123

◆ 7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7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7월호가 추가 오더 되어 재고가 준비되어 있으니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내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K-1(3부 TA), 초등부 (2,3부 교사 & TA) 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오전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성경적 성교육 Purity 프로그램 우리 자녀들은 비성경적인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짜여진 Purity 프로그램을 통해 베델의 자녀들이 말씀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결을 배우는 시간에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등록 기간: 7월 17(일)-7월 31(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상: Purity Kids(4-5학년), Purity Teens(6-8학년), Purity Young Adult(9-11학년)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C2C 청소년 힙합댄스 Workshop 다양한 워십 중의 하나인 힙합으로 다음세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찬양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시: 8월 19(일)과 8월 26(일) 오후 4시-7시
대상: 6-12학년 베델 교인 (2022-2023학년)
등록/등록기간: 베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7월 24(일)-8월 14(일)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교역자 동정 BGC를 섬기는 Peter Lee 전도사님이 7월 21(목)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 기도해주세요
- 예살 필라델피아 단기선교가 7월 22(금)-7월 30(토)까지 있습니다.
- 다음세대 제자훈련 멕시코 티와나 단기선교가 7월 25(일)-7월 29(금)까지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황순현, 황현주 선교사의 아들 Tim 형제와 Kristy 자매의 결혼식이 7월 30(토) 롱비치에서 있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 God granted him what he requested 1 Chronicles 4:9-10

Apply to Life

